

추석 명절 가정예배순서지

예배의 부름 시편 118:1-2 인도자

추석을 맞이하여 올 한해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을 신실하게 인도하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시 118:1-2)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559장 다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 말은이

성경봉독 마태복음 14:14-21 인도자

- 1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 15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 16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 17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 18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 19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 20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 21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설 교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설교자

찬 송 405장 다같이

1.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2.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3. 주의 보좌로 나아 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후렴.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 교 말 씀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서 네 곳에 모두 기록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요약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14, 15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사랑과 섬김의 도를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막 10:45)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셨으며, 그들의 슬픔과 아픔, 어려운 상황을 함께 공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질병과 배고픔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살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서로 돌아보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는 그리스도인들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며,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입니다. (13절) 날은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굶주림에 지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을로 내려가 음식을 구해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의 해결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텅없이 부족해 보이는 음식을 예수님에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후 직접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필요한 부분을 기도로 간구하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지혜를 제공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새로운 기회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14절) 예수님은 기적과 은혜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열두 바구니에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최근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그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추석 명절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